

촌철살인의 '시사칼럼집' 인기 끈다

시의성 한계 떨치고 책으로 묶여 나와 예상 밖 호조

명쾌한 논리, 분명한 관점, 예리한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한 적절한 대안의 제시-라디오 방송이나 일간신문, 시사잡지 등에 정기적으로 게재되어 영근 실타래와 같이 뒤섞여 돌아가는 세상사를 가다가다 풀어내어 잘잘못을 가리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역할을 해왔던 인기 칼럼니스트들의 '시사칼럼'이 책으로 묶여 나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읽어가며 살려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잣대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쓸 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간명하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 독자들의 안목을 넓히며 정치의식을 길러주는 역할을 했던 시사 칼럼들이 복잡한 사회현실을 반영하듯 속속 단행본으로 묶여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연재당시 고정독자를 확보하며 인기를 끌었던 명칼럼니스트들의 책들도 여러권 출간이같은 칼럼집의 봄에 격을 높여주고 있다.

전, 현직 언론인 책들 동시적으로 선봬

최근 웅진문화에서 나란히 출간된 박권상씨의 「저자세 고자세가 아닌 정자세로」와 최일남씨의 「왜소한 인간의 위대함 위대한 인간의 왜소함」은 위낙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시사평론가들의 칼럼집으로 지난해 도서출판 동아에서 함께 칼럼집을 묶은 데 이어 또다시 동시출판하고 있어 우선 눈길을 끈다.

먼저 「저자세 고자세...」는 동아일보 논설주간과 시사저널 주필을 지냈던 저자가 지난해 초부터 올상반기까지 썼던 글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제목이 시사하듯 「정자세」로 한국정치 현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사회정의 등의 비평 잣대에 입각하여 6공화국의 실정, 국민들의 정치불신문제, 통일문제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치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과격한 논리를 배격, 형평감각이 두드러져보이는 합리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논설고문을 지낸 소설가 최일남씨의 「왜소한 인간...」은 박권상씨가 지적한 정치권의 잘못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태에 어떤 영향을 몰고오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해낸 저자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따스한 정이 넘쳐나는 칼럼집이다. 샘이깊은 물, 시사저널 등에 실었던 글 64편을 실고 있는데 「위대한 인간들의 왜소함」(정치권의 부도덕성)을 꼬집으면서 「왜소하지만 위대한 인간」들에게 정치권으로부터 들었던 등을 다시

둘러 '역전의 희망'을 갖자고 역설하고 있다. 현실의 답답함과 내일의 막막함을 어루만지며 마침내는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유려하고 넉넉한 문체에 담겨 있다.

중견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 잘 알려져 있는 류근일씨(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는 최근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자신의 기명칼럼을 모아 「쇠귀들은 들을지어다」(책세상)를 펴냈다. 저자의 첫 정치평론집 「전환기의 모색」(88년) 이후 4년만에 나온 이 평론집에는 88년말부터 91년초까지 신문에 연재했던 '류근일 칼럼' 외에도 사회비평에세이, 그리고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논문이 들어 있다. '우리는 왜 밤낮 지지고 볶으며 살까?' '세사람의 대통령' 등 모두 3부에서 기록권을 고수하려는 보수파와 과격한 급진과 양쪽을 함께 비판하면서 점진적 개혁에 의한 우리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중도적 논리를 보인다.

앞서 세권이 구체적 사실과 날카로운 현실감각으로 명쾌하게 시사비비를 가린 언론인들의 칼럼집이라면 단단한 학문적이론에 바탕을 두고 보다 논리적으로 세상을 분별해내는 대학교수들의 시사평론집들도 여러종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원로 경제학자 변형윤(서울대)씨가 지난 83년부터 91년까지 동아일보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등 각종 경제지에 발표했던 경제칼럼들을 모은 「경제와 휴머니즘」(동아출판사)은 관록있는 학자가 진단하는 우리경제의 치명적인 환부와 그 처방법이다.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분배의 정의' '경제의 민주화'라는 다소 상반된 듯하나 동시에 이루어 내야할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서강대 정의과 교수이자 「사회평론」 편집인인 박호성씨의 「수령의 정치 수레바퀴의 정치학」(한울)은 현실정치에 대한 필자의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문제의식이 살아넘치는 대중용 정치칼럼이다. 한겨레신문의 칼럼란 '아침햇발'에 실렸던 글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수령에 빠진」 정치를 끌어내고자 「수레바퀴를 짜는」 한 정치학도의 웅골찬 직언이 짙막짙막한 글 속에 담겨 있다.

방송 라디오칼럼도 속속 활자화

정치·사회·경제 제분야의 화급한 현안들을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이와같은 논리적 포럼이 대중들 속에



일상화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독특한 기여를 해온 방송칼럼은 홍사덕씨가 지난 8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여의 방송내용을 5권의 칼럼집으로 묶어낸 것을 시작으로 라디오칼럼의 단행본화가 크게 늘고 있다.

정치평론가로 요즘들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박재창(숙대 행정학과)교수는 신문·잡지 칼럼을 모아 최근 「가마귀우는 곳에 백로야 가야 한다」(삼인행)를 낸 데 이어 주 2회 MBC라디오를 통해 내보냈던 방송칼럼들을 묶어 「열린 세상 막힌 정치」(윤문)도 펴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열린세상...」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입각해 정치현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칭찬과 나무람'을 가한다. 박재창 교수와 함께 MBC라디오칼럼을 나누어 맡았던 김대동(성대 경제학과)교수의 방송내용도 「6공경제학」(푸른산)이란 이름으로 묶여나왔다. 지난 1년반 동안 방송됐던 100여개의 경제이야기 가운데 33항목을 돈·집·땅·투기 등 9개의 주제로 묶고 있는데, 6공경제정책의 허상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실랄히 파헤치고 있다.

지금은 폐지되고 말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평화방송의 PBC칼럼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일상생활의 갖가지 수수께끼가 풀려지는 듯한 쾌감을 선사했던 백기범(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씨도 최근 「어떻게 될 것인가」(푸른나무)를 펴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사회의 제반모순을 「근대국가의 와해」라는 가설로서 설명하고 있는 저자는 그때그

때의 현실문제를 골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해내어 청취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상업성 기대 않았으나 예상밖의 호조

이상과 같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시사칼럼집들은 6공화국의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의 제반 문제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환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사실상 이들 책은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당면문제들을 화두로 삼는 칼럼의 특성상 시의성이 있는 것도, 전체적인 짜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지 3, 4개월 안팎의 이들 시사칼럼집들은 대부분 재판을 웃돌고 있어 판매에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출판사측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푸른산출판사에서는 「6공경제학」의 여세를 몰아 역시 MBC라디오칼럼의 인기연사였던 김성남변호사의 칼럼집을, 세계사에서 한상진(서울대 사회학과)교수의 신문, 잡지 연재글을 모으고 있는 등 시사칼럼집의 출간 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비인기종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칼럼집이 뜻밖의 호조를 띠는 것은 1, 2년전의 현안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 오늘의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이 '한시성' 짙은 시사칼럼집을 지금 이 시점에 서도 유효하게 읽힐 수 있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는 우울한 진단도 들린다.

—정혜옥 기자